

2020. 4. 23 (목)



▲ 투자전략

Analyst 이진우

02. 6454-4890

jinwoo.le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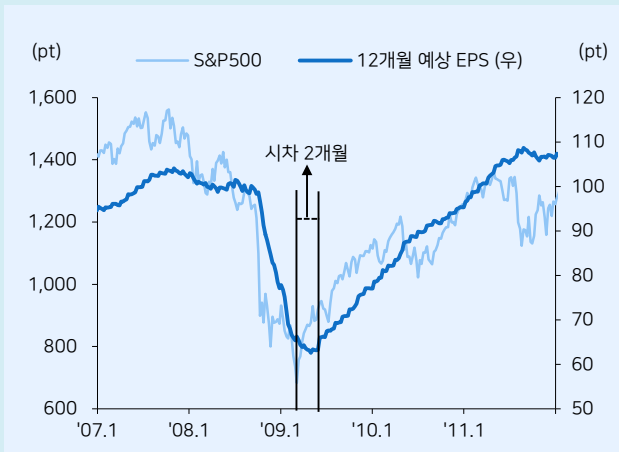
이미 시장은 ‘하반기’ 이후를 보기 시작

국내외 1분기 실적 발표가 한창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예고된 실적부진 속에서도 선전을 한 기업도 관찰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가장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2분기 실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의 실적 그 자체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선전’ 그 자체로도 의미는 있습니다.

시장이 빠른 걸까요?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 중이지만 시선은 이미 하반기 이후로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분기까지 실적이 부진할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있기 때문이죠. 주가도 이미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건은 하반기 이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부진하더라도 하반기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거나 더 나아가 올해보다 내년에 큰 폭의 실적회복이 기대되는 기업이라면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방향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금씩 낙관이 살아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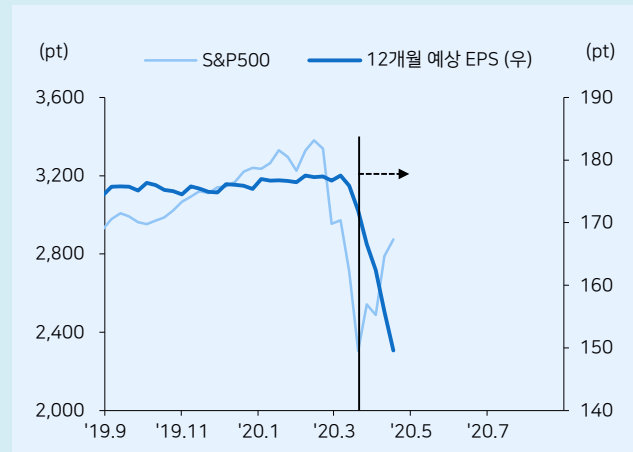
주가의 ‘선행성’, 실적의 ‘후행성’은 급락 이후 더 뚜렷해집니다. 금융위기 당시 S&P500은 '09년 3월초에 저점을 확인했지만 실적 전망의 개선은 이로부터 2개월 뒤인 5월경부터 진행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지금은 주가 저점이 3월말경임을 감안한다면 당장 실적 전망 개선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이른(?) 시기일 것입니다.

금융위기 당시 주가의 선행성: 실적전망보다 2개월 선행



자료: I/B/E/S, DataStream,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현재는? 아직은 실적전망 개선을 기대하기는 이른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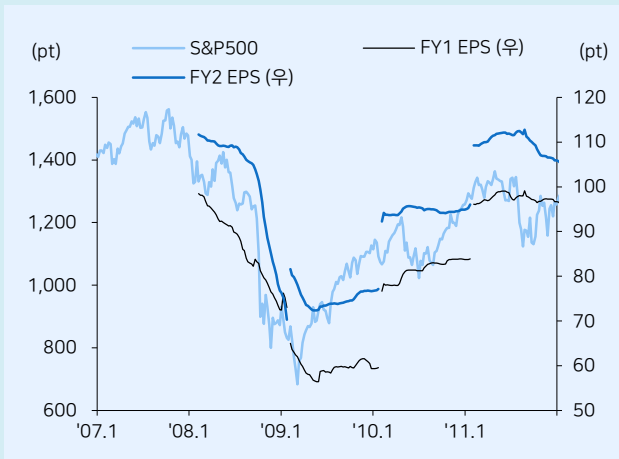


자료: I/B/E/S, DataStream,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실적 전망은 하향 조정되는데 주가는 오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미래'에 대한 확신이 뒷받침 되어야 주가회복이 추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적으로 표현하면 '현재'는 'FY1(당해 실적전망)', '미래'는 'FY2(내년 실적전망)'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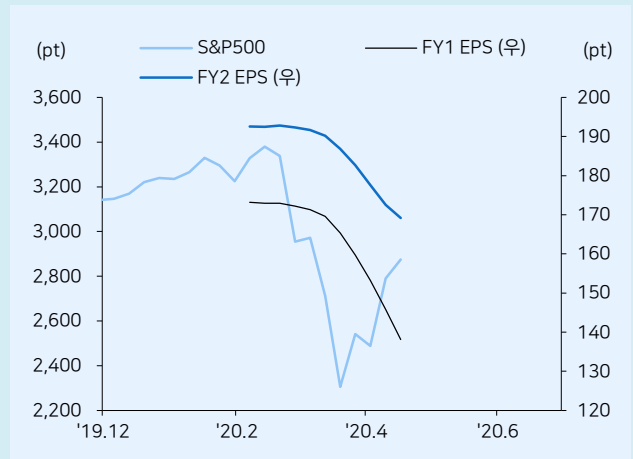
금융위기 당시 주가 급락의 한복판에서는 현재(FY1)의 실적보다 미래(FY2)의 실적전망이 빠르게 위축됐습니다. 미래에 대한 공포가 컸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코로나19의 특수성 때문인지 미래보다는 현재의 실적 공포감이 더 크게 투영된 듯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진정세를 보인다면 내년의 기대감은 생각보다 빨리 투영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주요 업종의 올해와 내년 실적전망을 보면 턴어라운드 폭이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운송, 자동차, 은행이 대표적이고 반도체, 헬스케어, 소프트웨어와 같이 상대적으로 선전한 업종은 내년에도 두 자리 수 대의 실적 성장이 예상됩니다. 우리도 고민을 시작해야 할 듯합니다.

금융위기 주가 급락기에는 현재보다 미래가 걱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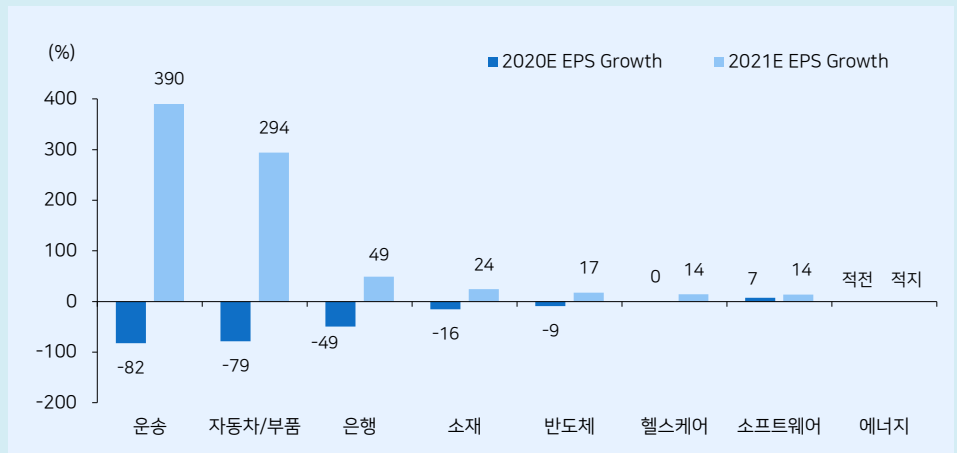
자료: I/B/E/S, DataStream,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지금은 코로나19 특수성으로 현실이 더 걱정



자료: I/B/E/S, DataStream,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주요 업종의 2020년, 2021년 실적 성장률 전망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Schneider	42.35	-3.45	-8.1
The Travelers	25.42	-2.04	-7.5
Ericsson	54.03	-3.39	-7.4
Oracle	38.82	-2.39	-6.7
United Parcel	67.00	-4.00	-5.8
Lowe's	18.32	-1.02	-5.6
AirPro	43.52	-2.32	-5.3
	34.68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